서영학 여수시장, COP31 참석…COP33 유치 행보

기후변화대사 면담·학생 대상 산업전환 메시지 전달

서영학 여수시장이 11월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막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 참석해 국제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행사장 운영 현황을 살피며 2028년 COP33 개최를 위한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서 시장은 공식 기후협상이 진행되는 블루존(Blue Zone)의 한국홍보관을 찾아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 교체수석대표인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면담했다.

이어 한국홍보관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들과 만나 국내 기후기술과 녹색전환 정책 및 사례를 살펴봤다.

또한 서 시장은 그린존(Green Zone)에서 튀르키예 교육부가 운영하는 환경교육관을 방문해 튀르키예 정부 관계자들과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전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석유화학산업단지를 보유한 여수의 지역적 특성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전환과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아울러 COP31 참관 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산업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로!'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여수시장 명의로 서명해 교육관 내 나무 전시물에 게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여수의 탄소중립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한편, COP31 행사장은 약 110만㎡ 규모로, 공식 협상과 국가별 홍보관이 운영되는 블루존 약 52만 7천㎡와 시민 참여 및 환경교육·전시 공간인 그린존 약 58만 2천㎡로 구성됐다. 총회 기간에는 각국 정부 대표단과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 등 약 1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는 이번 참관을 통해 대규모 국제회의의 공간 구성과 운영 방식, 참가자 이동 동선 및 출입 관리 체계 등을 살펴보고, 이를 COP33 개최 후보지 구상과 향후 운영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COP31 참석이 COP33 개최 준비를 한층 구체화하는 계기로 삼고, 여수의 산업·해양·섬 자원과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후행동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국제회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COP33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개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연계해 여수만의 차별화된 개최 비전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넓히고 COP33 유치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서영학 여수시장이 COP31 행사장을 찾아 COP33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수 시청 제공

순천 별량면, 송천정미소서 이웃 위해 백미 74포 후원

순천시 별량면(면장 김종환)은 지난 9일 송천정미소 김용춘 대표가 경로당과 취약계층을 위해 백미 20kg 74포(490만 원 상당)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송천정미소의 쌀 후원은 지역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온 나눔 활동이다. 오랜 기간 한결같이 이어진 후원은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도 변함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에 후원받은 백미는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종환 별량면장은 "매년 잊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송천정미소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후원해 주신 백미는 경로당과 취약계층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후원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전하고 이웃 간 상생과 나눔 문화 확산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가족센터·광양제철소 프렌즈봉사단, 다문화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광양시가족센터는 지난 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프렌즈봉사단과 함께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 두 쌍의 합동결혼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호동 백운플라자에서 열린 이번 결혼식은 다문화부부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결혼식의 주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이승복 공정품질 부소장이 맡았으며, 국제가야라이온스클럽의 축사와 다락마루 예술공연단, 앙상블 힐러스, 서지명 수석테너 등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광양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도 참석해 두 부부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합동결혼식은 프렌즈봉사단이 주최하고 광양시가족센터가 주관했으며, 예식 비용의 일부는 포스코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기부금으로 충당했다.

2007년부터 이어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프렌즈봉사단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올해까지 총 20회에 걸쳐 76쌍의 부부를 지원했다.

손경화 광양시가족센터장은 "타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다문화부부가 외롭지 않도록 많은 분이 함께 축하해 주신 이번 행사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합동결혼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2026년 마을공동체·으뜸마을 한마당 개최

곡성군이 한 해 동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로 일궈낸 마을공동체와 으뜸마을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축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곡성군은 오는 11월 20일(금) 오후 2시 곡성문화체육관에서 마을공동체 54개소와 으뜸마을 104개소 참여 주민을 비롯해 마을활동가,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곡성군 마을공동체·으뜸마을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으뜸으로 모이고, 공동체로 잇고, 소득으로 웃고'를 슬로건으로, '우리 동네 장터 가는 날'을 주제로 진행된다.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별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행사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입장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행사장에는 마을공동체와 으뜸마을의 다양한 활동 결과물과 성과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을 비롯해 슛팡 및 심리상담 체험, 기본소득 정책 체험관 등 다채로운 참여형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축하공연과 기본소득 퍼포먼스(패션쇼), 공동체·으뜸 도전 골든벨, 경품 추첨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행사에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마당 행사는 1년 동안 주민들이 만들어낸 따뜻한 돌봄과 자치의 결실을 서로 축하하고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이다"라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곡성의 미래를 그리는 이번 축제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일규 기자

구례군의회, 제334회 임시회 개회…군정 질문·안건 심의 진행

구례군의회(의장 문승옥)는 11월 9일 구례군수 등 집행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1월 17일까지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수철 의원이 발의한 「CPTPP 가입 논의 철회 촉구 건의안」과 유시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 및 국가 재정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정질문은 10일(화)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제10대 구례군의회와 민선 9기 집행부 출범 이후 첫 군정질문으로,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과 최근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원들이 질문하고 군수가 답변할 예정이다. 질문 제한시간은 의원 1인당 20분이며 필요한 경우 10분의 보충질문을 더 할 수 있다.

문승옥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예정된 군정질문은 군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구례군의회도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구례군의회 임시회 영상은 구례군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에서는 '구례군의회'를 검색 · 구독하면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심선섭 기자

